ELIO’S LITTLE DISCOVERIES

Again: Rain Outside, Friends Inside

다시 보는 수건을 기다리는 사이



10세 · Day 031 · 함께 읽기 · 3장면



Inside, Elio took a soft towel from its peg. He offered it to Bori and waited. Bori reached out for the towel.



Bori held the towel and patted a wing. Elio sat nearby and waited. There was no need to hurry.



After Bori finished, the towel went back on its peg. The two friends sat together on the low bench. Both were in a dry place.

함께 발견해요

읽기 전

같은 책의 세 장면을 다시 펼쳐요.

함께 읽을 때

‘Elio sat nearby and waited.’를 읽고 기다림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봐요.

생각 나누기

기다려 주는 것은 어떤 도움일까요?

생활에서

가족이 무언가를 하는 동안 옆에서 기다려 주는 연습을 해 봐요.

《비 오는 날의 방문》의 같은 여덟 그림에 문장을 늘린 함께 읽기 판이에요. 보호자가 낯선 표현을 도와주고 한 문단씩 나누어 읽어요. 앞의 소리 연습만으로 혼자 읽도록 만든 자료는 아니에요.

ELIO expanded reader · 제1판
교육자·보호자·아이의 사용 검토는 별도로 필요합니다.